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26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마을에서 포도따기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이 머리 위로 주렁주렁 매달린 청포도를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교육 마친 21명

“고국 돌아가 5·18정신 전파할 것”

“고국으로 돌아가 광주의 ‘5월 정신’을 전파하고,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인권운동가가 되겠습니다.”

“2010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수료식을 앞둔 26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만난 참가자 21명은 지난 3주간의 인권학교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털어놓고 있었다.

이번 인권학교에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태국·버마 등 14개국 21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를 통해 아시아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와 발전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니(여·25·인도네시아 실종가족협회 간사)씨는 ‘동남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인권학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아시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리니씨는 또 “인권학교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알리는 한편, 민주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고국 동료들에게 힘

과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UN 재건지원단의 핫산 비기(28)씨는 “지난 3주간 김대중 대통령과 군부 독재 등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원주민 법률지원 센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매리 앤(여·34)씨는 “이번 과정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실태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인권학교는 지난 2004년 개교 이후 25개국 14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거쳐가는 등 한국의 민주화 발전과 5·18 민주화쟁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올해 인권학교는 ‘국가 폭력과 과거사 청산’, ‘5·18과 지역 문화운동’,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운동’, ‘여성 인권의 과거와 현재’ 등을 주제로 지난 9일부터 3주간 열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1분 해질 19시 07분 달뜨기 20시 00분 달짐 08시 08분

우산 챙기세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 구분  | 구름 많고 한때 비 | 기온     |
|-----|------------|--------|
| 광주  | 25/32℃     |        |
| 목포  | 25/30℃     |        |
| 여수  | 25/29℃     |        |
| 완도  | 25/30℃     |        |
| 구례  | 24/31℃     |        |
| 해남  | 25/31℃     |        |
| 장흥  | 25/30℃     |        |
| 고흥  | 24/30℃     |        |
| 순천  | 25/30℃     |        |
| 영광  | 24/32℃     |        |
| 진도  | 25/31℃     |        |
| 전주  | 24/32℃     |        |
| 남원  | 22/32℃     |        |
| 옥산도 | 구름 많음      | 23/30℃ |

지외선지수: 보통, 식중독지수: 경고, 불쾌지수: 매우 높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8(토) | 29(일) | 30(월) | 31(화) | 9/1(수) | 2(목)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26/31 | 25/30 | 24/31 | 24/31 | 24/31  | 24/31 |

# 국·지방도 CCTV 판독 불능

## 뺑소니 차 찍혔어도 번호판 식별 못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뺑소니 차량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화면의 질이 높은 ‘판독용 CCTV’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장흥경찰서 및 전남도내 일선 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지방도 도로상에 화소가 높은 ‘판독용 CCTV’가 거의 없거나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마저 통행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판독기능이 떨어져 뺑소니 차량 및 범칙 차량의 추적이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새벽 1시경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앞 지방도도로에서 40대 부부가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5일째 아무런 단서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지역의 경우 국·지방도로상에 설치된 CCTV수는 총 60개, 하지만 이 가운데 판독용 CCTV는 국도 23호선 노선인 부산면 소재지 단 한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영상 질이 떨어져 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실상 ‘무용지물’ 방범용 카메라이다.

더욱이 이들 방범용 CCTV(41만 화소)는 외부환경에 강한 산업용 장비인 판독용(200만 화소)과는 달리 외부환경에 약한 가정용 장비로 대부분 지난 2001~2002년에 설치돼 나

외파해 등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판독용 CCTV의 대당 가격은 44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1200만원대에 비해 4배 가까이 비싸지만 신속한 범인 검거 등을 위해서는 판독용 CCTV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CCTV 설치는 일선 지자체가 부담하고 사후 관리는 경찰이 맡고 있으며,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판독용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나주시와 해남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광주·전남 천둥·번개까지 .. 주말에도 흐리고 비

27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는 국가 지정축제로서 신뢰도와 도심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축제 프로그램과 기간 등은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구는 26일 “예산이 투입되는 무

27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는 국가 지정축제로서 신뢰도와 도심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축제 프로그램과 기간 등은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구는 26일 “예산이 투입되는 무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27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는 국가 지정축제로서 신뢰도와 도심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축제 프로그램과 기간 등은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구는 26일 “예산이 투입되는 무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 108-11227-8940

☎ 108-11227-8940

☎ 108-11227-8940

☎ 108-11227-8940

무안 ↔ 소림사 직항 열차

광주 문화관광 전세기 사무실 ☎ 108-228-0070

무안 ↔ 소림사 직항 열차

광주 문화관광 전세기 사무실 ☎ 108-228-0070